

“연내 출고로 개소세 혜택 약속”... 국내 후업계 마케팅 총력

코세페·개소세 혜택 맞춰 마케팅 쌍용차 최대 80만원 등 혜택 다채 르노삼성 SM6 등 연내출고 약속 연말 개소세 할인혜택 막차 가능 **쉐보레** 무이자 할부·현금 지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연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마케팅에 총력전에 나선다.

특히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에 맞춰 주요 차종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과 사은품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각종 할인은 물론, 보증기간 연장, 프로모션 패키지로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더블업 찬스 페스티벌'을 통해 차량 구매 시 할부조건에 따라 최대 80만원 지원하는 스페셜할부 및 제로할부, 장기 저리할부, 로열티 프로그램, 노후차 지원 등 차종별 다양한 고객 맞춤 구매혜택을 제공한다.

코란도 및 티볼리&에어를 일시불로 구매하면 최첨단 안전주행 시스템 딥컨트롤 패키지 무상 장착해 준다. 선수금 없는 스페셜 할부(4.3%/~72개월)로 구매 시 80만원을 지원한다. 올 뉴 렉스턴 및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도 스페



한국지엠 쉐보레 트레버스.



르노삼성 2022년형 SM6.

셜 할부로 구매하면 5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제로(Zero) 할부로 코란도, 티볼리&에어를 구매하면 선수금 30% 납입 시 0.3%(36개월)의 초저리 금리가 적용된다. 올 뉴 렉스턴은 선수금 없이 2.3%(36개월)의 저리할부와 선수금 10% 납입 시 2.7%(60개월)의 장기 저리할부를 운영한다.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은 선수금 없이 3.3%(최장 48개월)의 장기 저리할부 운영한다. 선수금 10% 납입 시 최장 60개월까지 할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 구매 시 20만원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올 뉴 렉스턴 마

스터 모델 출시를 기념해 출고 고객에게 9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튜닝 무상 시공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는 지난달에 이어 지속 운영한다.

르노삼성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이달 중 주력 차종 계약 고객들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내 출고도 약속했다.

르노삼성은 내수 판매 물량에 대한 반도체 등 부품 확보 성과로 SM6, QM6, XM3 등 부산공장 생산 주력 차종의 연내 출고를 약속할 수 있게 됐다. QM6는 구매 시 출고까지 3~5일, SM6와 XM3는 선택사양에 따라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이에 따라 11월 내

르노삼성 계약 고객들은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는 개소세 인하혜택을 누리며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또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SM6는 2021년형 모델을 현금구매 할 경우 200만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2020년 생산된 SM6에 대한 추가 할인(최대 100만원), 7년 이상 노후차량 보유 고객 추가 할인(20만원)을 더할 경우 최대 혜택의 폭은 320만원까지 늘어난다.

QM6도 편의사양과 용품, 보증연장 구입지원비로 GDe 모델 150만원, LPe 모델 50만원의 지원혜택과 함께 7년 이상 노후차량을 보유한 고객에게 20만원의 추가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르노마

스터 15인승 버스 구매고객에겐 8인치 스마트 네비게이션, HD 후방카메라, 승객석 램프 메인 스위치 등 88만원 상당의 용품을 증정하고 최대 150만원의 차량 보험료도 지원한다.

전기차 조에(ZOE)는 현금구매 시 100만원의 할인과 1년 2만km 무료주행이 가능한 선불 충전카드도 제공한다. 특별할인 50만원 혜택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도 적용 가능하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쉐보레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쉐보레는 트레버스, 말리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할부와 현금 지원이 결합된 콤보 할부를 통한 구매 시 트레버스 250만원, 말리부 180만원의 현금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 7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보유한 트레버스, 말리부 구매 고객에게 각각 30만원,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타이어업계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국, 금호, 넥센 등 타이어 3개사는 사계절 및 윈터 타이어를 20~40% 할인 판매하며 주유권 등 사은품도 증정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캐시백... 상품권... 무이자할부... 명품할인...

카드사 “‘코세페’, 혜택 받고 쇼핑하세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맞아 카드사들이 2~6개월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할인혜택 등을 내세워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알뜰 소비족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먼저 신한카드는 코세페 기간 동안 '신한데이' 이벤트를 열고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캐시백을 제공한다. 행사 가맹점은 편의점·음식점·커피전문점·베이커리·약국·헤어샵 등 '동네 단골가게'와 CGV·롯데시네마 등 '영화관', LF·물·한식물·무신사 등 '패션몰'과 알라딘·문고·YES24 등 '온라인서점'이다.

동네 단골가게에서 15만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원을, 영화관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2000원을 캐시백 해준다. 패션몰에서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 온라인서점에서 5만원 이상 이용 시 3000원씩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각 카테고리별 중복 추첨도 가능하지만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결제건은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

할부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마이신한포인트를 지급한다. 신한 Day 이벤트 응모 후 행사기간 동안 가맹점에서 100만원 이상 이용 시 3만포인트를, 50만원 이상 이용 시 1만포인트를 지급한다.

KB국민카드는 ▲하이마트 ▲LG·삼성전자 ▲전자랜드 등에서 가전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거나 특정품목을 구입할 경우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11번가 ▲쿠팡 ▲백화점 ▲대형마트 등 가맹점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또는

〈2021 코세페 카드업계 혜택 프로모션〉

카드사	혜택
신한카드	-행사 업체 이용고객 중 응모고객 대상 1만명 추첨 캐시백 -백화점·대형할인점·온라인쇼핑몰·가전 등 주요 대형 유통사 연계 프로모션
KB국민카드	-가전제품 일정금액 이상 또는 특정품목 구매시 캐시백 -11번가·쿠팡·백화점·대형마트 등 일정금액 이상 또는 특정품목 구매시 즉시·청구할인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제휴카드 이용 금액대별 롯데상품권 증정 -롯데ON 즉시할인 또는 쿠폰 증정
우리카드	-우리WON마켓 기획전(인기상품 특가 모음전)
삼성카드	-GS·현대·롯데홈쇼핑·CJ오쇼핑·홈쇼핑 57%할인 -삼성디지털플라자 플러스 페이 결제시 기본추가 혜택 증정
현대카드	-주요 홈쇼핑업체·롯데백화점·LG·삼성전자·11번가·이마트24 등 5~10% 즉시할인 및 청구할인
비씨카드	-업종별 할인(반려동물·약국업종 등) -CU·스타벅스·유가네닭갈비 등 제휴업체 할인

/코리아세일페스타

신한 캐시백·포인트 이벤트
KB국민 즉시·청구할인 혜택
우리 명품 카테고리 상품 할인
롯데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특정품목 구매 시 즉시·청구할인해 주거나 상품권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우리WON마켓 기획전'을 열고 ▲디지털 ▲가전 ▲리빙 ▲명품 카테고리 인기상품을 특가 판매한다. 50대 한정판매 상품을 비롯해 50% 이상 할인상품, 명품 특가상품 등이 준비됐다.

삼성카드는 ▲GS ▲현대 ▲롯데홈쇼핑 ▲CJ오쇼핑 ▲홈쇼핑 ▲SSG닷컴에서 5~7%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 디지털플라자에서 삼성카드 플러스 페이로 행사 품목을 구매할 경우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는 주요 홈쇼핑업체를 비롯해 ▲롯데백화점 ▲LG·삼성전자 ▲11번가 ▲이마트24 등 가맹점을 대상으로 5~10% 즉시할인 및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 제휴카드 이용 금액대별로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ON에서는 즉시할인 또는 쿠폰을 지급하고 롯데마트에서도 품목별 할인 및 사은행사를 이어간다.

비씨카드는 반려동물·약국업종 등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CU ▲스타벅스 ▲유가네닭갈비 등 제휴업체에서도 할인 행사를 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코세페 이후 11월 내내 행사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어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권소환 기자 think@

‘소비 지원금’, 첫 달 환급액 3000억 넘어

한 달 동안 1488만명 신청
이달 15일 첫 캐시백 지급
7000억 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

신용카드를 쓴 금액의 월 최대 1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이 시작 한 달여만에 예정 지급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오는 15일 첫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생소비 지원금 사업은 지난 10월 1일 시작 한 달 간 1488만명이 신청했다. 지난 29일 기준 환급 예정액은 3025억원으로 집계됐고, 캐시백은 오는 15일 처음 지급된다. 카드 캐시백 예정 지급액은 지난 24일까지 1465억원에서 5일 만에 3000억원으로 두 배를 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 가능하고 아직 신청을 못한 분들은 11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10월 전체 실적은 캐시백 지급시기에 맞춰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10~11월에 3% 넘게 더 쓰면 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지원 사업이다. 관련 예산은 7000억원으로 재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 한 달간 153만원을 쓰면 3%인 3만원을 뺀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2개월 간 월 한도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이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뉴스

한다. 국내 소비 증진 목적으로 외국인도 포함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되 국민 편의를 위해 카드 사용처를 대폭 늘렸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CGV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도 실적이 인정된다.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은 물론 이마트에 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호텔, 가구·엔터테인먼트도 포함된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과 숙소·여행·공연상품 등 비대면 온라인 결제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면세점, 명품전문매장,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그리고 신규 자동차 구입 등은 제외된다.

캐시백 신청을 하려면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곳 가운데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카드사에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캐시백 내용을 안내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